



기초단체장 후보 인물·정책 검증

5·31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유권자들은 아직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체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이다.

광주일보는 광주·전남지역 주요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인물·자질·공약을 비교하는 기사를 연재,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위기의 동구 구하겠다” 자신

■ 광주 동구청장

2일 현재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로는 열린우리당 임택, 민주당 유태명, 무소속 양희창씨가 각각 등록한 상태다.

40대 후보로 패기를 앞세운 열린우리당 임택 후보는 ‘동구의 신행엔진’을 자처하고 일하는 구청장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

정부의 예산을 끌어들이 동구 발전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동구의회의 재선의원으로 지난 17대 총선에서는 양희일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민주당 유태명 후보는 ‘활력 동구, 역시 유태명’을 구호로 내세우며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는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열정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재선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그는 주요 3대 공약 이외에도 “7개 권역 특화개발, 23개 구역 재개발

■ 광주 동구청장 후보



임택 (42) 우리당



유태명 (62) 민주당



양희창 (51) 무소속

현직	구의원	동구청장	(주)동호 대표이사
학력	조선대 정책대학원 재학	조선대 정책대학원	조선대 정치학박사
주요경력	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	민주당 동구 부위원장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장
병역	병장 만기 제대	소집면제(제1보충역)	허사 제대
재산	3천만원	3억3천만원	과약 중
주요공약 (3가지)	문화예술진흥 특구 추진 노인복지선진시범지역 추진 용산동 친환경주택지 조성	동구문화센터 건립 금리프로젝트 추진 용산지구 환경친화적 뉴타운 조성	도시 재개발 시민영구임대아파트 건설 특수 목적도 설립

있는 교육허브도시, 요람에서 무덤까지 실현되는 따뜻한 복지도시, 시민을 으뜸으로 모시는 고품격 시민 만족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뒤늦게 선거전에 뛰어든 양 후보는 ‘CEO 구청장’의 진면목을 보여준다는 각오다. 오랫동안 기업 경영을 통해 배운 경험을 구청에 도입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구민의 바

람을 정치 욕심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며 “살아 움직이는 지역의 ‘참일꾼’이 되고자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또 “85년 21만 인구의 동구가 지금은 11만 인구가 줄었다”며 “뛰어난 행정력과 추진력, 겸손한 자신감으로 압축에 처한 동구를 위기에 서 구해내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0대 후보 패기’ ‘CEO 구청장’ 강조 도시재개발·문화예술특구 정책 대결

다. “학생운동과 시민사회운동 속에서 참다운 지방자치의 길을 배웠다”는 임 후보는 “광주 동구는 도청·시청이 떠나고 디자인센터 및 현대미술관 유치도 실패하는 등 지난 자치 11년 동안 동구 발전의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한 뒤 “집권 여당의 청장으로서 중앙

사업, 18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9만평 GB해제지역 개발사업 등 활력 있는 도시개발을 통해 동구의 낮은 지도를 새롭게 바꾸겠다”며 “이를 통해 동구를 격조 높은 문화예술 관광의 신중심도시, 주거환경이 쾌적한 매력있는 생태도시, 미래를 여는 경쟁력

■ 광주 남구청장 후보



김해진 (47) 우리당



황일봉 (48) 민주당



김창훈 (43) 민노당

현직	지방자치연구소 소장	광주시 남구청장	골드랜드건설 대표
학력	전남대 대학원	조선대 대학원	조선대 법학과
주요경력	남구 당원협의회 회장	전남대 총학생회장	남구위원회 지방자치위원장
병역	의기 제대	제2국민역(절병)	정집면제(교통신고)
재산	2억1천만원	2억8000만원	1억1천900만원
주요공약 (3가지)	남구 민속촌 조성 진제 생활체육공원 조성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백운지구 중심상권 육성 봉선·방림지구 교육·주거지 육성 효천·대촌지구 웰빙주거 단지 조성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만민공동회 개최 사회복지 예산 20% 확보

‘지역 일꾼’ 내가 책임자 “구발전 초석 다지겠다”

■ 광주 남구청장

광주 남구청장 도전자는 열린우리당 김해진, 민주당 황일봉, 민노당 김창훈, 무소속 강도석, 역시 무소속 박창용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해 있다.

남구는 그 동안 민주당의 아성이었다가 지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변이 됐던 지역. 따라서 열린우리당 후보는 지방권력까지 교체해야 한다며, 민주당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의 패배를 뒤집겠다는 목표로 각각 힘차게 뛰고 있다.

“경선 승리의 여세를 본선으로 이어가겠

장을 던졌다. 지난 민선 3기 성과를 남구 발전의 초석을 쌓아 자녀 세대에까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보성 출신으로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맡아 반독재투쟁을 했던 그는 제1대 광주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지방자치의 전면에 나섰다.

황 후보는 “주거환경개선사업·효천지구 개발사업·진월택지개발사업 등 3대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효사랑 실천운동의 다각화 심화 발전, 김치·콩·지식·영상 등 5대 콘텐츠 육성 등을 통해 활력있는 남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노당의 김창훈 후보는 ▲주민조례청구

‘효사랑 실천’ 등 5대 콘텐츠 육성 영세상인 위한 구도심상권 회복

다”는 열린우리당 김해진 후보는 ‘변함없는 남구 일꾼’을 자처하고 있다. 10여년 동안 교사의 길을 걸다가 전교조 문제로 해직된 후 구의회에서 지방자치를 배워온 그는 “중앙 정치에 왜곡된 지방자치의 본질을 반드시 주민에게 회복시켜 보겠다”는 야무진 각오를 다지고 있다.

김 후보는 “20여년 동안 남구를 떠나지 않으면서 희망의 남구를 준비해 온 ‘동네 일꾼’으로서 동네 구석구석을 파헤쳐 주민의 가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소박하고 성실한 구청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황일봉 후보는 “100년 남구를 생각 하는 효자 구청장”을 모토로 걸고 재선 도전

권을 완화해 주민발의제도 실질화 ▲주민소환제 및 참여예산제 도입과 주민투표제도의 개선 ▲구청 전 간부의 업무추진비 상계 공개 ▲각종 위원회 회의 원칙적 공개 ▲현안사업 심의 과정에 주민 대표 참여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진정한 자치일꾼”을 표방하고 있다. 그는 또 “영세상공인을 위해 남구 구도심 상권 회복을 위한 ‘만민공동회’ 개최, 할인점 내 영업품목 규제, 재래시장 현대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의 두 후보도 정당 후보들의 틈을 비집고 지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혁신리더’ ‘행정전문가’ 자부

■ 광주 북구청장

광주 북구청장 도전자들은 열린우리당 이형석, 민주당 송광운, 민노당 오창규, 무소속 나정만씨 등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경우 반명환 예비 후보가 신청한 ‘북구청장 후보자 전라공천 효력 정지 가져분’이 받아들여져 송 후보의 당 후

위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북구를 광주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로 바꿔놓겠다는 각오다.

그는 광주은행(17년간 근무)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경제에 해박할 뿐 아니라 재선 시의원으로서 최우수 의원에 선정된 만큼 자치역량도 충분하다고 자부한다. 또 만 40의 나이로 광주시의회의 의장에 선출될 정도로 리더십도 인정받고 있다. 이 후보는 이같은 자질을 바탕으로 ‘부자 북구’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

■ 광주 북구청장 후보



이형석 (44) 우리당



송광운 (52) 민주당



오창규 (39) 민노당

현직	정당인	전문행정가	정당인
학력	전남대 대학원	고려대 행정학과	전남대 심리학과
주요경력	광주광역시의회 제8대 의장	전라남도행정부지사	광주시당 청년위원장
병역	병장 만기 제대	병장 만기 제대	상병 만기 제대
재산	1억5000만원	7억5천600만원	2천만원(자동차)
주요공약 (3가지)	자연·인간 공존 예코리인 건설 R&D 특구 유치 특목고·협약학교 유치	기술집약형 기업·투자 유치 광주 교육의 메카로 육성 북구를 고품격 문화지대로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치 대형할인점 입점 및 영입규제 문흥동 교도소 삼각동 이전 반대

과 실무를 기초로 지역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세계 속의 민주 인권 성지로 거듭나도록 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되살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전남대 총학생회장(93년) 출신으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온 후 후보는 30대 패기를 앞세워 ‘나눔의 공동

체, 살맛나는 북구’를 건설한다는 각오다.

그는 “인구 46만의 북구 역시 대한민국의 땅이라면 그 주민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신음하고 있다”며 “당원들과 더불어 서민 속으로 뛰어들어 민(民)이 주인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다양한 경력·경험 ‘준비된 구청장’ 역설 R&D 특구·기술집약형 기업 유치 최선

보자격은 정지된 상태다. 하지만 아직 후보 교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상황이고 중앙당 관계자들이 송 후보의 재공천이 유력하다는 말을 흘리는 상황이어서 기존 후보를 기사에 반영했다.

열린우리당 이형석 후보는 ‘혁신리더, 경제 북구’의 가치를 내걸었다. 젊음의 힘과 특

고 ‘시민과 함께 하는 구청장’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각오다. ‘행정전문가’를 내세우는 송 후보는 행정 출신으로 광주시와 전남도 중앙부처의 고위직을 두루 섭렵했다.

또 출마 직전 전남도 행정부지사로 재직 중일 정도로 행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다. 그는 “공직생활에서 축적한 지식